

P-54

공여 난자를 이용한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 후 산과적 결과

김해숙 · 양광문 · 차선화 · 허 걸 · 송현정 · 궁미경 · 강인수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제일병원 산부인과

Background & Objectives: 난자 공여 후 성공한 임신에서 산과적 예후 및 이에 미치는 영향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Method: 1994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10년간 삼성제일병원 불임클리닉을 방문한 불임환자 중 공여 난자를 이용한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에 의해 임신한 74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동일기간에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을 통해 임신에 성공한 환자 중 나이, 산과력 등을 조절한 135명을 대조군으로 선정하여 두 군의 산과적 예후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Results: 임신초기유산이 난자 수혜군의 35.1% (26/74), 대조군의 22.2% (30/135)에서 발생하여, 난자 수혜군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학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1$). 나이, 산과력 등 임신중독증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두 군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임신 중독증이 난자 수혜군의 18.8% (9/48)에서 발생하여 대조군의 7.6% (8/105)에 비해 발생빈도가 높았으나 통계학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4$). 한편, 난자 수혜군을 난자공여자와 수혜자의 관계에 따라 자매군과 비자매 군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임신 중독증이 비자매군의 28.6% (6/21)에서 발생하여 대조군의 7.6% (8/105)에 비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높은 발생빈도를 보였다 ($p=0.013$). 그리고, 비자매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임신 2삼분기 질출혈 (26.3% Vs 3.9% $p=0.005$) 및 초기유산 (36.4% Vs 22.2% $p=0.116$)이 많이 발생하였다.

Conclusions: 난자 수혜 후 성공한 임신에서 자가이식한 임신에 비해 임신성 고혈압의 위험이 증가하며, 특히 난자 공여자가 면역적으로 관계가 없는 남인 경우 임신성 고혈압의 위험성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난자 수혜 후 성공한 임신은 고 위험 임신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러한 임신에서 임신성 고혈압의 원인기전으로 어떤 면역학적 원인이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P-55

Effectiveness of Intravenous Immunoglobulin Therapy in Women with Recurrent Spontaneous Abortions with Unknown Etiology

양광문 · 박찬우 · 김해숙 · 김혜옥 · 유근재 · 강인수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제일병원 산부인과

Background & Objectives: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Low-Dose Intravenous Immunoglobulin (IVIg) therapy in women with unknown etiology.

Method: Twenty RSA women with unknown etiology who had received low-dose IVIG therapy (IVIg 400 mg/kg every 4 weeks, from 5 weeks to 20 weeks) included in this study. Controls were seven RSA women with unknown etiology who had not received IVIG therapy. In this study, associated with aneu-

ploidy by karyotype analysis and evidence of genetic, endocrine, infections, immunologic or anatomic factors were excluded and we retrospectively analyzed the pregnancy outcomes and compare the results between study and control groups. Successful pregnancy outcome was defined as pregnancy ongoing beyond 25 gestational weeks.

Results: Age, number of previous abortions, we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between two groups. Also, seventeen women who received IVIg therapy (17/20, 85.0%) but, five women who had not received (5/7, 71.4%), had a successful pregnancy outcome and the success rate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s: Based on our study, low-dose IVIg therapy have no advantage in treatment of RSA patients with unknown etiology, but more lager scaled prospective study is needed for available of conclusive evidence.

P-56 과배란 유도 후 발생한 병합임신을 예측하는데 β -hCG 값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차선화 · 양광문 · 김해숙 · 김혜옥 · 송인옥 · 강인수 · 궁미경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제일병원 산부인과

Background & Objectives: 병합임신시 모성 사망률은 정상적 임신보다 70배 이상의 위험성을 갖으며 모체 및 자궁내 태아 유병률의 빈도가 높아 조기 진단이 매우 유용하다 할 수 있다. 과배란 유도 후 발생한 병합임신을 예측하는데 난자 채취 후 12일째와 14일째 측정된 혈중 인간 융모성 성선자극 호르몬 베타 소단위 (β -human chorionic gonadotropin, β -hCG)의 효용성과 가능한 임계치를 알아보는데 있다.

Method: 1994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지난 10년간 삼성제일병원 산부인과 불임클리닉을 방문하여 과배란 유도 후 발생한 병합임신 15예를 대상군 (group A)으로 설정하였다. 대조군의 설정은 같은 기간 내 과배란 유도 후 임신된 환자 중 연령 및 임신 초기 초음파 검사에서 확인된 임신낭의 수를 고려하여 정상 단일 자궁내 임신 (group B) 83예와 다태아 임신 (group C) 31예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이들의 진료 기록을 통해 난자 채취 후 12일째와 14일째 측정된 β -hCG치를 Student t-test를 이용하여 결과의 평균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통계적인 유의성은 $p < 0.05$ 를 기준으로 삼았다.

Results: 대상 기간내 총 18,244회의 과배란 주기 중 15예의 병합임신이 발생하여 8/10,000의 빈도를 보였다. 대상군과 대조군 간의 연령, 난관 인자 여부, 이식한 배아수, 보조부화술 여부에는 차이가 없었다. 난자 채취 후 12일째 측정된 β -hCG치의 평균은 각각 group A는 54.9 ± 8.6 , group B는 48.1 ± 3.4 , group C는 126.5 ± 10.3 mIU/mL (mean \pm SE)로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난자 채취 후 14일째 측정된 β -hCG치의 평균은 각각 group A는 214.9 ± 33.9 , group B는 146.1 ± 10.6 , group C는 406.4 ± 38.7 mIU/mL (mean \pm SE)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ROC 곡선에서 80%의 특이성을 가지며 정상 단일 자궁내 임신에 비해 병합임신을 예측할 수 있는 난자 채취 후 14일째 혈중 β -hCG의 임계치는 211 mIU/mL 이상이었다.

Conclusions: 과배란 유도 주기 후 발생한 병합임신을 예측하는데 난자 채취 후 14일째에 측정된 혈중 β -hCG 값은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